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일본현대시수업」 방안

남 이 숙*

(e-mail ; ysnam@kunsan.ac.kr)

<목 차>

- | | |
|-----------------------------|-------------------------------|
| 1. 첫머리에 | 4. 난이도를 고려한 일본 현대시 수업의 단계적 방안 |
| 2. 창의성이란 | |
| 3. 일본현대시, 창의성 신장 텍스트로서의 가능성 | 5. 끝머리에 |

キーワード：日本現代詩(Modern Japanese poetry), 創造性(creativity), 觀察(observation), 好奇心(curiosity), 多次元的思考(multi-dimensional thinking), 修辭法(Rhetoric), 段階的授業 (stepwise teaching)

1. 첫머리에

최근 들어 인성 창의 면접이니 창조경제니 창의인재 양성이니 하며 창의를 핵심가치로 두는 발언을 많이 접한다.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 제일부자가 되는 세상이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인류문명사를 바꾸어왔으니 당연히 주목할 만한 가치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창의성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며 인간의 사고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가치와 비판적 수용능력,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변화가 느린 입시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지식의 습득과 전달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창의성이란 어떤 능력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와 혁신은 한 번의 경험이나 노력으로 쉽게 얻어지는 것일까. 내가 담당한

* 군산대학교 교수, 일본문학

과목 안에서 창의성 교육은 가능할까?

이런저런 의문으로 시와 관련된 서적들을 검토해 보니 틀을 깨는 기발한 생각들과 신선한 아이디어의 발상을 돕는 책들이 많았다. 그 중에 『시에서 아이디어를 얻다』란 책이 눈에 띄었다. 세계에서 제일 바빴을 것 같은 스티브잡스와 같은 글로벌 리더들이 시를 즐겨 읽는다는 내용이 있었다.¹⁾ 그렇다면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일본현대시수업>에서도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고는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먼저 학계에서 창의성을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고, 창의성 신장을 위한 텍스트로서 일본현대시가 적합한지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장에서 행한 <일본현대시수업>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사고력을 신장을 위해 어떠한 시수업이 가능하고 이러한 시수업을 통해 어떤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²⁾

2. 창의성이란?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창의성이라고 하면 과학자나 기술자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을 연상하기 쉽다. 실제로 1950년대 이후 학자들은 창의성을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 보고 이들의 정신과정이나 특성을 밝혀서 창의성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자인 아마바일(Amabile, 1983)은 창의성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의 특성으로 보는 것이 창의성에 대한 오해를 야기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창의성은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적절한 아이디어나 행동 또는 산출물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을 내세웠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창의적 인간의 특성보다는 창의적 행동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³⁾

소여(Sawyer, 2006)도 1970년대까지는 창의성을 창의적인 사람의 정신과정이나 특성으로 보았지만 이는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 개

1) 황인원(2010) 『시에서 아이디어를 얻다』 흐름출판 p.5.

2) 지금까지 ‘창의성 신장’을 주제로 삼아 ‘일본 현대시수업’에 관해 보고한 논문은 없음

3) 조연순·성진숙·이혜주 지음(2008) 『창의성교육』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18.

인, 집단, 사회로부터 새롭고 적절한 것이 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창의성이 사람의 머리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정에서 나온다고 보았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창의성을 '새롭고 적절한 것을 만들거나 생각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한 인간의 동기, 태도, 능력, 기법이 지속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특성'이라는 박병기씨의 주장은 합당하다고 생각된다.⁵⁾

그러면 창의성은 인지적 측면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할까.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를 참고하면 창의성에 해당하는 '창조하기'는 인지과정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해 있다. 그는 지적 영역의 인지과정 목표를 다음과 같이 하위 사고력인 '기억하기'에서부터 '이해하기·적용하기·분석하기·평가하기·창조하기'의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⁶⁾

인지과정	목표능력
기억하기	정보를 인지하고, 상기해 내며, 재기술하는 능력
이해하기	인지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적용하기	사실적 정보, 제시된 이론, 모델과 구조를 실제 세계의 상황과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
분석하기	하나의 사실적인 요소로부터 복잡한 관계를 구성하고, 관계를 재구성하며, 수요를 평가하는 능력
평가하기	최초의 정보에 나타나지 않은 결론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맥락과 정보, 과정의 성격에 대해 복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창조하기/ 합성하기	최초의 맥락에서 복잡한 정보의 집합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식 구조의 표상을 창조하는 능력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블룸은 '창조하기'를 최고수준의 사고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확산 내지는 수렴적 사고를 하여 창의적 지식구조가 창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면 하위인지능력은 무시해도 좋은가? 하위 인지 영역에 속하는 내용을

4) 앞의 책 p.19.

5) 이주섭 외 7인 공저(2014) 『국어과 창의성 신장 방안』 박이정 p.16.

6) 김태완저 (2013) 『글로벌 시대의 교육』 학지사 p.190.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기도 일반 지식을 축적하거나 사실정보를 처리하고 의미를 확장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성경구절에도 등장하는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란 표현이 있다. 이 말처럼 창의성이라는 것도 무에서 갑자기 유가 생겨난 것은 아니다. 간혹 순간성 또는 우연에 의해 기발한 것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의 것을 발전시키고 변형시키는 창의성이 대부분이다.

창의성은 특수 영역에 대한 관심,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 의해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수한 영역에 관한 배경지식을 풍부히 해야 한다. 나아가 다른 영역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도 많아야 양자 간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을 찾아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고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창의성은 어떻게 발현될까? 영국 교육과정 평가원은 그 해답을 교사의 역할에서 찾고 있으며, 창의적인 학생들의 특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⁷⁾ 지면의 제한도 있으므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질문하고 도전한다.
2. 연결하고 관련성을 찾는다.
3. 어떠할지 예측한다.
4.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선택의 여지를 남긴다
5. 아이디어 행동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심사숙고한다.

여러 교과목을 염두에 넣고 정리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창의성과 관련된 이러한 특징들은 현대시 수업을 통해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수업을 통해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지식수준과 행동에 관심을 기울여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하면 발현될 수 있는지 궁리해야 할 것이다. 창의성을 북돋우기 위해 내용을 잘 이해시키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 관련짓게 하고, 추론하게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야 한다. 이러한 수업은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게 하는 질문과 토론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교수자는 권위와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수용적이면서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가능한 한 학습자들이 많은 의견을 교환하게 도와야 한다. 토론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보다 많은 생각을 이끌어내게 하는 브레인스토밍 학습법⁸⁾을 도입해도 좋을 것이다.

7) 조연순·성진숙·이혜주 지음(2008) 『창의성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253~255.

8) 브레인스토밍은 미국의 광고회사 BBOD의 사장인 오스본(Alex F. Osborn)이 회의에서 좀더 창의

3. 일본현대시, 창의성 신장 텍스트로서의 가능성

문학이란 삶의 경험과 미적 가치의 표현으로서 지적 활동의 소산이다. 왜 문학이 창의성의 텍스트가 될 수 있는가?

문학의 소재가 되는 우리네 삶을 살펴보면 각자가 모두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즉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개인의 삶도 같은 것 같지만 어제와 오늘의 삶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의 삶이 다르다. 이미 축적된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삶의 본질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문화 역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변화한다. 전화 하나만 예로 들어도, 수동식 전화기에서 무선용 삐삐, 손 안의 컴퓨터 역할을 스마트폰으로 발전해온 역사를 생각해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독자성과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라면 문학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창의성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인 특유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토대로 한 시문학 역시 창의성의 소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은 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시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적 상상력과 시인 특유의 감성을 토대로 해서 내면세계의 이미지를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함축적으로 형상화시키는 작업이다. 이러한 장르적 특징 때문에 시 언어는 산문언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외재율이든 내재율이든 운율감이 있으므로 리듬감과 음악성을 느끼며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문을 읽는 것보다 가락에 얽힌 노래가사를 익히기가 훨씬 수월한 것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음악적 언어를 잘 받아들인다. 시는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하여 음악성을 갖고 있으며, 이 음악성은 인간의 유희 본능을 자극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힘이 있다.⁹⁾ 나아가 시를 읽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으므로 연설이나 광고나 일상의 언어생활에 적용하면 우리들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¹⁰⁾

적인 아이디어를 쉽게 내기 위해 고안한 방법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법이다. 보다 많은 아이디어 산출을 위해 판단보류·자유토론·질보다 양·아이디어의 결합과 개선이라는 규칙을 정해 놓고 토론에 임한다.

9) 김대행 외8인 공저(2008)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p.156~158. 참조

둘째, 시에는 다른 문학 장르와 변별시켜주는 특징으로 이미지 · 비유 · 상징 · 반어 · 역설 등의 표현이 다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¹⁾

이미지는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 시각이나 촉각을 이용해 반응하게 하며 독자에게는 어떤 형상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형상으로 작용한다. 반드시 시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언어생활에서도 언어화되는 대상은 대상 그 자체보다는 대상의 이미지로 작용한다. 이미지는 대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표현원리임을 이해하고 있으면 수업에 도움이 되 것이다.

비유와 상징도 시의 대표적인 표현방식이다. 이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비유법이란 어떤 사실을 직접 설명하거나 진술하지 않고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현상이나 사실에 빗대어 말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원앙새처럼 다정한 부부’, ‘산더미 같은 파도’, ‘한국의 축구 만리장성을 넘었다’ 등의 표현이다. 미지의 상태를 기지의 상태로 환원시킬 때 쓰는 표현법¹²⁾으로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된다.

상징은 원관념이 생략된 형태이다. 용맹스러움은 독수리나 사자로, 평화는 비둘기로 나타내는 식의 표현이다.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약정의 수준에 따라 표현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은유와 구별된다.

이러한 표현법은 인간이 언어를 관찰하고 기술하기 시작하면서 발견된 원리로 동물과 다른 인간의 인지능력의 일단을 보여주는 언어현상이다. 사람은 잠재적으로 창의적 사고와 함께 창의적인 언어 운용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기존의 언어를 유효적절하게 변형 확대해 사용하는 것을 즐긴다. 이밖에도 역설이나 반어 등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해 독자의 공감을 끌어들이는 표현이 많다.

시문학의 이러한 특성을 교수자가 수업에 임하기 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면 학습자에게 언어 표현능력이나 사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도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문학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 교육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며 창의적인 언어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¹³⁾

10) 남이숙 「속담의 운율과 수사법을 활용한 문학 수업-일본속담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51집 2011.12 pp.89~91.

11) 10)의 책 pp.160~162.

12) 장하늘(2009) 『문장표현의 모든 것 글쓰기 표현사전』 다산북스 p.77.

13) 구인환·우한용·박인기·최병우(2008) 『문학교육론』 三知院 pp.243~244 참조

그러면 직접 일본현대시를 인용하여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초여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정집 울타리를 장식하는 꽃. 익숙한 풍경에 사람들은 청초한 모습을 눈길을 줄 뿐 별 생각 없이 지나친다. 그런 나팔꽃을 야마무라 보초(山村暮鳥)는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이하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시의 출처는 天沢退二郎씨가 편찬한 『日本名詩集成』을 참고로 했다. 14)

ある時	어느 때
一輪の朝顔よ	한 송이 나팔꽃이여
ここに	지금 여기에
生きた瞬間がある	살았던 순간이 있구나
生くることの尊さがある	살아 있다는 고귀함이 있구나

나팔꽃은 잠에서 깨어난 어린아이의 얼굴 마냥 예쁘고 환하게 한 송이씩 피는 꽃이다. 하지만 아침 한 나절 피고나면 시들고 마는 속절없는 숙명을 가진 꽃. 이 한 순간의 개화를 위해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생의 한 순간을 멋지게 장식한다. 산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와 고귀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준다. 보통사람들이라면 예쁘게 핀 나팔꽃의 모습에 취해 꽃의 성장과정에 관해서는 간과하기 쉬운데 시인은 이를 놓치지 않고 포착해낸 통찰력을 바탕으로 간결한 시어를 사용하여 한 수의 시를 완성하고 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시도 많다.15) 열 살 소년인 이와다 유시(岩田有史)의 시이다.

不思議	신기함
露が白いことも	이슬이 하얀 것도
風が音を立ててふいてくることも	바람이 소리를 내어 부는 것도
ささの葉が青いことも	대나무 잎이 파란 것도
犬が犬で	개가 개이고

14) 天沢退二郎(1996) 『日本名詩集成』 学灯社

15) 米沢英雄 (1977) 『こころの詩』 黎明書店 p.32.

猫が猫であることも
不思議でたまらない

고양이가 고양이인 것도
신기하기 짝이 없다

열 살 소년의 눈에 비친 신기함은 누구한테도 신기하다. 하지만 이미 이런 풍경에 익숙해진 어른들에겐 그냥 무관심의 대상일 뿐이다. 과학자는 그 중 어떤 것을 대상으로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슬이 하얀 이유를 알아도 대나무 잎이 파란 걸 알아도 그러한 것이 존재하는 사실은 천년이 만년이 지나도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호기심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창의력은 이처럼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질문하지 않으면 호기심은 죽고 호기심이 죽으면 창의력은 실종된다.

자신의 근원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을 묻는 차원에서 읊은 시도 있다. 다음 시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다니카와 슌타로(谷川俊太郎)의 제1시집의 ‘かなしみ(슬픔)’이란 소품이다.

あの青い空の波の音が聞えるあたりに
何かとんでもないおとし物を
僕ははじめてしまったらしい

저 파란 하늘 파도소리가 들리는 곳에
뭔가 당치도 않게 소중한 물건을
난 놓아두고 와버린 것 같다

透明な過去を駆で
遺失物係の前に立ったら
僕は余計に悲しくなってしまった

투명한 과거를 역에 있는
유실물 보관소 앞에 섰더니
나는 한층 더 슬퍼지고 말았다

이 작품은 소품이지만 그의 시적 상상력을 훌륭하게 소묘한 대표작이다. 자신은 지구라는 이 우주의 작은 혹성에 버림받은 다른 천체의 고아가 아닌가라는 슬픔을 읊고 있다. 사회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갈등이나 애증의 일체를 알기 이전에 일찍이 우주와 천체의 구조의 비밀을 알아버린 이의 우수! 이러한 우수를 학습자들은 느껴본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나 느낄 수 있는 우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과 같이 음미하며 토론하게 해 보면 그들의 상상력의 범위는 지구라는 공간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인간세계에서 느끼는 고독감이 아니라 우주세계를 알아버린 이의 고독감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한 고독감이기 때문이다. 보통의 시인들이 다루는 대인관계

나 실의에서 벗어난 감상성과는 차원이 다른 이러한 시는 일본시 세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시는 아니다. 그의 시 <잔디(芝生)>라는 제목의 시도 위의 ‘슬픔(かなしみ)’와 유사한 발상으로 읊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そして私はいつか	그리고 난 언젠가
どこからきて	어디에서 와서
不意にこの芝生に立っているのか	갑자기 이 잔디 위에 서 있는가
なすべきことは	해야 할 일은
私の細胞が記憶していた	내 안의 세포가 기억하고 있었다
だから私は人間の形をして	때문에 나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幸せについて語りさえたのだ	행복에 관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시의 속편처럼 느껴지는 시이다. 어떤 시인은 이 시를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소감을 적고 있다. 16) 다른 시에서 볼 수 없는 상상력과 감성과 지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すべきことは/私の細胞が記憶していた>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유전자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한 사람의 인간이 탄생할 때까지 이미 그 구조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정교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태어난 인간인 만큼 사는 것을 귀찮고 지겹고 무료해 견딜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곤란하다. 이 갈등과 반목으로 몸살이하고 있는 지구를 슈퍼맨처럼 일어서서 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신념이 깃들여 있다. 해야 할 일은 모두 세포가 기억하고 세포에 입력된 대로라면 휴식도 없이 계속 활동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총화인 인간이 무기력함을 호소한다는 것은 존엄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읽힌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시란 시적 상상력과 시인 특유의 감성을 토대로 해서 내면세계의 이미지를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함축적으로 형상화시키는 작업이다. 다니카와의 시의 시공간은 학습자들에게 많은 생각거리와 토론거리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된다.

자연이나 사물을 바라보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시도 상당수 있다.

다음 시는 가와사키 히로시(川崎洋)의 ‘どうかして(어떻게 해서)란 시이다.

16) 吉野弘(1989) 『詩の楽しみ』 岩波ジュニア新書 p.133.

樹

なんとかお前に交わる方法はないかしら
葉のしげり方
なんとかお前と
交叉するてだてはないかしら

鳥

お前が雲に消え入るように
ぼくがお前にすっと入ってしまうやり方は
ないかしら
そして僕自身も気づかずに
身体の重みを風に乗せるコツを
僕の筋肉と筋肉の間に置けないかしら
…後略…

나무

어떻게 너와 사귀는 방법은 없을까
잎이 무성해지는 방식
어떻게 너와
교차하는 수단은 없을까

새

네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네 안으로 슬쩍 들어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신체의 무게를 바람에 싣는 요령을
내 근육과 근육 사이에 둘 수 없을까

숲의 생활이나 새처럼 나는 법을 인간은 체험할 수 없다. 그러나 작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숲의 생활과 나는 기술은 없을까 진지하게 생각한다. 특히 2연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신체의 무게를 바람에 싣는 요령을/ 내 근육과 근육 사이에 둘 수 없을까>라는 3행의 표현이 재미있다. 새는 <신체의 무게를 바람에 싣는 요령>을 근육 사이에 감추고 있어서 난다고 생각해 자신도 그 요령을 자신의 근육과 근육 사이에 둘 수 있다면 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자신도 모르게 고생도 않고 그 요령을 훔칠 수는 없을까 라고 읊은 대목이 흥미롭다. 새처럼 날고 싶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늘을 나는 순서를 생각하는 시인의 소망을 읽다 보면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작자와 함께 정말 어떻게 날아야 할까 하고 나는 일을 궁리하게 유도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시 작품은 작가의 정신적인 가치물이기도 하여 복합적인 사회적 이슈들을 탐색한다. 특히 이라바기 노리코(茨木のり子) 시인은 복잡한 현대를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다음 이바라기 시인의 시 ‘얼굴(顔)’을 살펴보자.

電車のなかで狐そっくりの女に遭った 전차 안에서 여우를 꼭 닮은 여자를 만났다

なんともかとも狐である	어떻게 보아도 여우이다
ある町の路地で蛇の目をもつ少年に遭った	
	어떤 거리의 골목길에서 뱀의 눈을 한 소년을 만났다
魚かと思うほど鰓の張った男である	
	물고기라고 생각될 만큼 턱뼈가 발달한 남자도 있고
鶇の目をした老女もいて	개똥지빠귀의 눈을 한 할머니도 있고
猿類などはざらである	원숭이 등은 널려 있다
一人一人の顔は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은
遠い遠い旅路の	머나먼 여정의
気の遠くなるような遥かな道程の	정신이 아찔해질 것 같은 아득한 여정의
その果ての一瞬の開花なのだ	그 끝의 한 순간의 개화이다

あなたの顔は朝鮮系だ先祖は朝鮮だな	당신 얼굴은 조선계다 선조는 조선인이지
と言われたことがある	하고 들은 적이 있다
目をつむると	눈을 감으면
見たこともない朝鮮の	본적도 없는 조선의
澄みきった秋の空	맑게 갠 가을 하늘
つきぬける蒼さがひろがってくる	하늘바닥이 들여다뵈는 푸르름이 퍼진다
たぶん そうでしょう と私は答える	아마 그렇겠지요 라고 대답한다
…後略…	

눈앞의 인간 속에서 여우나 뱀이나 새나 원숭이의 모습을 보는 작가의 상상력은 가공의 DNA를 통해 인류의 기원까지 되돌아보게 한다. 이바라기 시인은 이를 <멀고 먼 여정의 정신이 아찔해질 것 같은 아득한 도정의 그 끝의 한 순간의 개화이다(遠い遠い旅路の/気の遠くなるような遥かな道程の/その果ての一瞬の開花なのだ)>라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각각의 존재는 과거에서 와서 미래로 가는 도중의 한 순간의 가지적 형태일 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종이나 민족, 국가주의와 종교의 차이로 늘 반목하고 투쟁하고 갈등하고 있다.

세상은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다.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를 바꿀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작자는 이미 예견하고 상상 속에서 한반도나 평균 표고 5000미터인 과미르 고원으로 공상의 시간여행을 즐긴다. 상상력을 발휘해 한반

도와 파미르 고원이 일본인들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사실 국가나 민족이나 인종은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I was born>이란 표현이 의미하듯이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이다. 영토나 국가, 종족분쟁이나 종교 등의 문제로 난민이 발생하는 나라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자. 자민족 중심주의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고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시 한 수를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시 속의 상상력이란 이처럼 현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통찰을 하게 할 뿐 아니라 경험 세계의 범위를 벗어나 결합할 수 없는 것들을 결합시키고 꿈을 현실 안에서 실현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시 이외에도 창의력을 향상시키기에 좋은 시라고 판단되는 다양한 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지면으로 소개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다양성을 경험하게 해주는 시문학 공간은 창의력 신장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일본현대시 공간은 다양성을 충분히 경험하게 해준다는 판단이 들었다. 실로 여러 관점에서 관찰하게 하고 사고하게 하고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수업의 자료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4. 난이도를 고려한 일본현대시 수업의 단계적 방안

필자가 담당한 수업은 1학기 15주간 1주에 3시간 단위로 진행된다. 매년 수업에 임하여 올해 목표는 어떻게 정할까 하는 고민으로 수업을 시작하는데, 올해는 ‘시를 통해 창의성을 기르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수업을 준비했다. 그런데 학과 내에서 수업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겨 <일본현대시> 수업은 다른 교수님이 담당하게 되었고 내게는 <교재연구법>이라는 교직과목이 주어져 학생들 8명을 데리고 아래 수업의 일부를 시험적으로 행하여 보았다. 약 3주간에 걸쳐 모델수업을 보여주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학생들은 질문을 많이 던지고 대답하는 방식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

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수업에 질문과 토론을 많이 도입하여 열기 가득한 즐거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하여 필자의 수업은 도중하차의 상태이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할애하여 난도 높은 시에 관한 소개는 계속할 예정이다.

시수업 역시 수업모형 일반론을 고려하면서 시장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하는 수업방식을 소개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창의성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외국시를 중심으로 시수업을 전개하여야 하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의 언어는 산문언어와 달리 내포성을 띠고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번역이 무척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미리 대상으로 삼을 시의 표현방식과 해석 난이도를 분석하여 어떻게 하면 일본시를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할지

교수자는 충분히 심사숙고해 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준비를 전제로 본 장에서는 수업의 단계적 도입방안에 초점을 맞춰 시를 어떻게 소개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해석하기 어려워 싫다’, ‘시인들은 자신만의 느낌을 자신만이 아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 같다’, ‘은유 이미지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힘들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거부감을 드러내는 학생이 많았다. 이런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학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업 초반에 시란 어떤 성격을 가진 문학 장르인지 학생들과 토론 형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시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점에 관해 정리한다.

- 이미지 비유 상징 역설 반어법 등 수사법을 활용, 언어구사능력을 높인다
- 함축적이고 세련되고 정제된 언어표현능력을 기를 수 있다.
- 사고의 유연성, 융통성을 기를 수 있다.
- 다양한 관점을 기를 수 있다.
- 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시도 있기 때문에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시 도입은 시가 어렵다는 거부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능하면 알기 쉽고 감동적인 시부터 시작하고 점차 난도 높은 시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첫 시간에 柴田トク의 ‘좌절하지 마(くじけないで)’의 시를 소개했다.

ねえ、不幸だなんて ため息をつかないで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짓지 마
陽射しやそよ風は えこひいきしない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夢は 平等に見られるのよ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私 辛いことが 多かったけれど 生きていてよかった	나도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살아 있어 좋았어
あなたもくじけずに	너도 좌절하지 말고

* 소리 내어 읽어보자. (시수업의 맨 처음은 낭독에서 시작된다. 현대시는 내재율이라는 이유로 읽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으나 잘못된 생각이다. 내재율도 운율의 일종이며 시의 구체적인 감동은 운율을 가진 시어의 구체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외국시일수록 여러 번 낭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해석해 보게 하고 제목을 어떻게 붙이면 좋은지 질문한다.

(くじけないで; 한참 후 학생들은 비교적 알기 쉬운 시이므로 정답을 찾아낸다. 다른 제목을 이야기해도 근거를 충분히 들어 발표하면 인정해주어야 한다.)

* 어떤 발상이 재미있는지, 어디가 재미있게 묘사되었는지 발표하게 한다.

(표현에 관해 토론하게 한다. 같은 작가의 시 중에서 감동을 주는 시를 찾아내어 소개하고 이 시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하게 한다. 이 시는 햇살과 산들바람 그리고 꿈이 주어가 되어 있다. 산문이나 보통의 대화에서는 이처럼 자연 현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드문데, 시인은 자연을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대하고 있다. 이 사물들은 완전한 것으로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대한다고 묘사하고 있는 점이 특별하다.)

*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인자신의 일상에 기쁨을 느끼고 일상을 충일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

시인의 또 다른 시도 제시하고 7분 정도의 시간을 주어 해석하게 한다.

何気なく 言った 言葉が	무심코 내뱉은 말이
人を どれほど	사람을 얼마나
傷つけていたか	상처주고 있는지
後になって 気がつくことがある	나중에야 깨달은 적이 있다.
そんな時 私はいそいで	그럴 때 나는 서둘러
その人の 心の中を訪ね	그 사람의 마음속을 방문해
ごめんなさい といいながら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消ゴムでと えんぴつで	지우개와 연필로
言葉を修正して いく	말을 수정해 간다.

* 어떤 표현이 재미있는가? 이 시의 특징은?

(사람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방문하는 대목. 우리 주변에 어려운 시만 있는 게 아니라 평이하면서 감동을 주는 시가 많다.)

* 평상시 읽은 시 중에서 자신에게 감동을 안겨준 시가 있는가?

시의 내용과 그런 시를 쓴 시인의 시 작법에 관하여 토론해보자.

이 시를 감상하거나 토론할 때는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편안한 음악이나 아름다운 영상이 있으면 찾아보고 들려주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러한 연결 짓기에 의해 창의성뿐만 아니라 평소 공부와 인간관계 등으로 찌든 마음까지 치유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에는 난도를 좀 더 높여 수준 높은 시를 소개해 보았다.

どこかに美しい村はないか	어딘가에 아름다운 마을은 없는가
一日の仕事の終りには一杯の黒麦酒	하루 일이 끝난 무렵에는 한 잔의 흑맥주
鍬をたてかけ籠を置き	괭이를 세워주고 바구니를 놓고
男も女も大きなジョッキを傾ける	남자도 여자도 커다란 맥주잔을 기울이는

どこかに美しい街はないか	어딘가에 아름다운 마을은 없는가
食べられる実をつけた街路樹が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매단 가로수가
どこまでも続きすみれ色した夕暮れは	어디까지나 계속되고 제비꽃색 해질녘은
若者のやさしいさざめきで満ち満ちる	젊은이들의 상냥한 술렁거림으로 가득 찬

どこかに美しい人と人との力はないか

어딘가에 아름다운 사람과 사람의 힘은 없는가

同じ時代をともに生きる

같은 시대를 함께 사는

親しきとおかしきとそうして怒りが

친근함과 우스꽝스러움과 그리고 분노가

鋭い力となってたちあられる

날카로운 힘이 되어 나타나는

*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시간을 주고 해석하게 한다. 어려운 단어들을 정리하고 낭독하게 한 다음 시를 해석하고 다시 낭독을 되풀이한다.

* 어떤 느낌의 시인가?

(기본적으로는 서정시의 분위기, 하지만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것을 노래한 시이므로 사회성의 기능을 부여한 시라고 할 수 있다)

* 이 시에는 어떤 수사법이 사용되며, 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도치법과 반복법, 시인의 의도를 환기시키고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1연의 3행의 ‘籠(바구니)’에 들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젊은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소곤거릴까요?

* 작자가 희망하는 ‘아름다운 마을(美しい村)’ ‘아름다운 거리(美しい街)’ ‘아름다운 사람과 사람의 힘(美しい人と人との力)’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시의 내용과 관련되는 다른 시나 영화나 가요를 찾아 토론해보자.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지고 추론하고 예측하게 하는 활동은 시에 대해 능동적인 해석을 하게 하고 동기유발 스키마의 활성화를 돕는데 효과적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하늘은 스모그로 덮여 있고, 깨끗한 냇가는 오염되어 바다로 흘러 내려간다. 아름다운 마을은 현실과는 다른 꿈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꾼다.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이 시를 읽은 젊은이들은 일상에서도 자기 주변의 삶의 터전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람들의 지혜가 흐르는 곳이 되도록 많은 생각을 떠올리며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힘쓸 것이다.

다음은 신카와 가즈에(新川和江)의 ‘わたしを束ねないで(나를 묶지 마세요)’이다.

わたしを束ねないで

나를 묶지 마세요

あらせいとうの花のように

스토크 꽃처럼

白い葱のように	하얀 파와 같이
東ねないでください わたしは稲穂	뭉지 마세요 나는 벼이삭
秋 大地が胸を焦がす	가을 대지가 가슴을 태우는
見渡すかぎりの金色の稲穂	바라보면 온통 황금빛 벼이삭

わたしを止めないで	나를 고정시키지 마세요
標本箱の昆虫のように	표본상자 속에 있는 곤충처럼
高原からきた絵葉書のように	고원에서 온 그림 엽서처럼
止めないでください わたしは羽ばたき	고정시키지 마세요 나는 날개짓하면서
こやみなく空のひろさをかいさぐっている	쉬지 않고 하늘의 넓이를 탐색하는
目には見えないつばさの音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짓 소리

... 3연 中略...

わたしを名付けないで	나에게 이름붙이지 마세요
娘という名 妻という名	딸이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
重々しい母という名でしつらえた座に	힘겨운 어머니란 이름으로 마련된 자리에
坐りきりにさせないでください わたしは風	계속 앉아 있게 하지 마세요 나는 바람
りんごの木と	사과나무와
泉のありかを知っている風	샘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 바람

わたしを区切らないで	나를 구분짓지 마세요
, や . いくつかの段落	콤마나 피리어드 몇 개의 단락으로
そしておしまいに「さようなら」があつたりする手紙のように	
	리고 마지막에 <안녕>이란 말이 있는 편지처럼은
こまめにけりをつけしないでください わたしは終りのない文章	
	꼼꼼하게 결말짓지 마요 나는 끝없는 문장
川と同じに	강과 같이
はてしなく流れていく拡がっていく一行の詩	끝없이 흘러가 퍼져가는 한 줄의 시

- *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밖에 이 시를 읽고 느낀 점은? ·
 (「도치범」 「같은 패턴이 반복됨」 「첨표와 마침표가 있어야 할 곳에 없다」 등을 사용해 문장에 생동감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 구두점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구두점을 넣어 문장을 읽어 보도

록 하자. (각 연을 질문하면서 해석을 행하도록 한다)

* 1연 후반은 어떤 의미인가? (벼는 수확하면 다발로 묶는다. 이 경우는 묶이지 않는 채로 논에 펼쳐져 있는 벼이삭이고 싶다고 해석 가능하다.)

* 2연 후반은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가? (지금도 곤충박물관에 가보면 곤충을 채집해 핀으로 고정시킨 표본상자들을 볼 수 있다. 시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쉬지 않고 날갯짓하여 하늘의 넓이를 알고 싶다고 하고 있다.)

* 4연 후반에서 「名付けないで」라고 있다. 왜 이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것도 이름 붙이는 것으로 틀에 갇히고 싶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넌 여자이니까」 「넌 후배니까, 넌 학생이니까」 넌 여학생이니까 그런 거친 스포츠는 유행이 아니니까 등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 5연 후반에서 けりをつける(결말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상대방을 자신에게 어떤 사항을 결정해 강요하면 어떨까?

* 구두점을 삽입해서 읽으니 시에서 강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어떤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어떤 기법이라고 생각되는가? (은유법과 반복법, 이런 수사법을 이용해 어떤 대상을 표현해 보기)

* 이 시는 5연으로 끝나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 주장하고 싶지만 이하 생략이라고 하는 뜻으로 묘사하고 싶은 곳이 있다. 어떤 표현일까? (わたしを区切らないで, や. いくつかの段落이 패턴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시를 적어 본다면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 계속 생각해보기)

시인은 여성작가이다. 시인이 살던 시대도 그렇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여성은 남성들보다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다. ‘자유로이 살고 싶다’고 주장하는 이 시는 여학생들의 마음을 흔들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반드시 여학생에게만 공감을 주는 내용은 아니다. 학교라는 제도와 군대를 떠올리면 남학생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이다. 가부장제를 강요해 남자들에게 많은 책임과 부담을 강요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다. 교육도 단순한 지식 위주로 주입하고 학습자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의 언어를 경험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창의적 사고를 수반하게 된다. 문학작품을 통해 경험하는 언어는 상상력이 구축한 세계에서 그 상상력의 구조를 해석하고 상상의 세계에 뛰어들어야 하므로 창의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

다.17) 상상으로 만들어진 세계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사고의 틀을 뛰어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를 읽는다는 것은 창의적 언어를 풀어내는 고차원적인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창의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시를 잘 감상하는 독자라면 시를 읽고 난 후 그 시의 이미지들이 그의 상상력에 나타나면서 느끼게 되는 미적 감동 속에서 놀라운 정신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신선한 격앙감이다. 이와 같은 이미지의 현상을 바슐라르는 ‘혼의 울림’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반향은 세계 안에서의 우리 삶의 여러 상이한 측면으로 흩어지는 반면, 울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심화에 이르게 한다. 반향 속에서 우리가 시를 듣는다면 울림 속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를 말한다. 그 때에 시는 우리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18)

이러한 시 수업을 통해 잘 감상을 하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삶을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다문화문제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소개한 이바라기 노리코의 <얼굴>과 같은 시를 소개하면서 인류의 기원을 따져보는 수업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기원을 따져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민족이니 인종이니 국민이라는 미명 하에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들의 아픔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보통사람들이 누리는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 단계로 구체성보다 추상성이나 관념성이 강한 상징시를 도입한다. 학생들이 이런 시 읽기를 가장 꺼리고 힘들어하는 건 명백하지만 미디어나 광고 등에서 표방하고 있는 언어의 다의성이나 이미지나 은유 등의 수사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시는 빈곤, 병고, 아들의 죽음 등을 경험하면서 결국 자신도 요절한 나카하라 츄야(中原中也)의 시 ‘月夜の浜辺(달밤의 해변)’이다.

月夜の晩に、ボタンが一つ

달밤에 단추 하나

17) 주4)이주섭의 7인 공저(2014) 『국어과 창의성 신장 방안』 박이정 p.16.

18) 광광수 『가스통 바슐라르』 민음사 1995 p.34에서 재인용

波打際に、落ちてゐた。

물가에 떨어져 있었다.

それを拾つて、役立てようと
僕は思つたわけでもないが
なぜだかそれを捨てるに忍びず
僕はそれを、袂に入れた。

그것을 주워서 유용하게 쓰려고
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웬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난 그것을 소매에 넣었다.

月夜の晩に、ボタンが一つ
波打際に、落ちてゐた。

달밤에 단추가 하나
물가에 떨어져 있었다.

それを拾つて、役立てようと
僕は思つたわけでもないが
月に向つてそれは抛れず
浪に向つてそれは抛れず
僕はそれを、袂に入れた。

그것을 주워서 유용하게 쓰려고
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달을 향해 던지지 못하고
파도를 향해 던지지 못하고
난 그것을 소매에 넣었다.

月夜の晩に、拾つたボタンは
指先に沁み、心に沁みた。

달밤에 주운 단추는
손끝에 스며들고 마음에 스며들었다.

月夜の晩に、拾つたボタンは
どうしてそれが、捨てられようか?

달밤에 주운 단추는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 있을까.

* 많이 쓰인 시어는 무엇인가? (それ-8회 버튼-4회 月夜- 5회)

それは 무엇을 의미할까? 단추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단추를 12회 사용하고 있으며 단추가 가장 중요한 시어이고 단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도움이 되어서 주운 것은 아니다. 아마 귀한 것도 비싼 것도 아니었으리라.

* 달밤에 주운 단추가 손끝에 스며들고, 가슴에 스며든다고 했을까?

(마음 아픈 추억이 깃들여 있는 것은 아닐까. 타인에게는 눈에 띄지도 않았을 것 같은 이 단추를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꼭 소용에 닿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버릴 수가 없다는 작가의 심정과 반복되는 리듬을 가진 표현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음)

* 단추가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 이 시를 쓴 배경은 ?

(두 살 난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고 난 직후 쓴 시라고 하는 설이 있다. 달 밤 해변가에서 우연히 발견해 주운 단추를 보며 살아생전 사랑을 쏟아 키운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아들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할까?

필자의 경우, 단추가 상징하는 것은 죽은 아들의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가 본 직으로 삼은 시(詩)를 상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다른 상상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동북 지진 때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무렵 그 지역 해변가 가까운 곳에 누군가가 소중하게 간직했을 소품이 떠내려 왔다고 상상해보자. 그것을 누군가가 주웠다고 가정해보자. 주운 사람은 그것이 소용없다고 바로 내던져 버릴 수 있을까?

이처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는 시는 훌륭한 시이다. 나카하라 츄야는 야마구치현 출신이지만 일찍이 동경으로 옮겨 활동하면서 서양문학에 눈을 뜨고 바야시 히데오와 교제하게 된다. 이때 프랑스 상징주의를 알게 되어 독특한 정서와 상징이 나타나는 시 세계를 창조했다는 설이 있으므로 학습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곁들여 주면 그의 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시는 나카에 도시오(中江俊夫)씨의 ‘밤과 물고기(夜と魚)’이다.

魚たちは 夜	물고기들은 밤에
自分たちが地球の外に	자신들이 지구 밖으로
流れ出るのを感じる	흘러나가는 것을 느낀다
水が少なくなるので	물이 적어지기에
尾ひれをしきりにふりながら	꼬리지느러미를 빈번히 흔들면서
夜があまり静かなので	밤이 너무나 조용하기에
自分たちの水をはねる音が気になる	자신들의 물 튀기는 소리가 신경쓰인다
誰かに聞こえやしないかと思って	누군가에게 들리거나 앓을까 하여
夜をすかして見る	밤을 투시해 본다
すると	그리고 있는데
もう何年も前に迷い出た	이미 수년 전 나가 길을 잃은
一匹の水すましが	한 마리 물메암이가

帰り道に迷って思案を忘れたように
ぐるぐる回っているのに出会う

귀가길을 헤매다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한 듯
빙글빙글 맴돌고 있음을 보게 된다

* 처음 읽었을 때의 시의 분위기는?

(고독한 밤에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이 연상됨.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 문장부호를 붙여서 읽어보게 한다.)

* 시 속의 물고기는 어떤 입장에 있는가?

(수족관이라도 좋고 바다라도 좋고 거기에 숨어있으면서 가만히 밤에 밖으로 지구 밖으로 기대와 불안을 전신으로 감지하면서 탈출을 시도한다.)

* 지구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물고기의 심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지느러미를 흔들며 그 소리에 신경을 쓰면서 밤을 주시하고 있다)

* 지구 밖으로 흘러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의미할까?

(지구보다 더 큰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의미함)

* 물이 적어진다(水が少なくなる)는 것은 어떤 상황의 비유라고 생각되는가?

(자신의 현실감이 희박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음)

* 몇 년간 집을 나가 헤매다 돌아온 물매암이(一匹の水すま)는 무엇을 의미할까?

(고독한 공간에 존재하는 물매암이는 작자의 자의식의 투영)

* 물고기와 물매암이에는 무엇이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고기는 사념에만 빠져 고독한 내면에 매몰된 젊은이들의 모습을 상징)

근대시나 현대시에는 이러한 상징을 이용한 시가 많다. 상징은 현상의 세계가 아닌 불가사의한 세계나 정신의 세계를 가시의 세계 즉 감각이나 물질의 세계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 두 세계 사이에는 역동적인 상관관계가 성립된다. 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상징은 비유와 같이 직설적으로 말하거나 글쓰기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어떤 사항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내용의 시를 독자들의 현실의 입장으로 되돌려놓고 해석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잠든 밤에 일어나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는 젊은이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이쯤 해서 자신의 입장을 떠올려서 감상문을 적어보게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할 때, 독자는 어떤 글을 대할 때 예측을 한다. 학생들은 주제나 제목에 대해 먼저 예측을 하고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 밤과 물고기를 취급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세계에 비추어가며 시

를 감상할 것이다. 시 해석에 능숙한 독자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사실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며 감상에 참여할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시를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시는 어떤 시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참신한 사고와 표현으로 독자를 감동시키는 시도, 관찰력과 호기심을 대상을 바라보고 자기 나름의 관점을 획득하게 하는 시도 있다. 때로는 현실공간을 벗어나 다양한 상상의 공간으로 독자를 끌어들이 자유로운 통찰과 자유로운 발상을 하게 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시의 표현에 주목해 보면 문장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수사법인 반복·강조·도치·이미지·상징 등의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며 일본현대시를 감상해 간다면 창의적 사고와 함께 창의적인 언어 운용능력도 갖게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끝머리에

이상, 창의성이란 어떤 개념이며, 일본현대시를 통해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실제 수업에서의 단계적 방안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창의성이란 새롭고 적절한 것을 만들거나 생각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한 인간의 동기 태도 능력 기법이 지속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특성을 말한다.
- * blooms은 교육분류체계에서 창의성에 해당하는 능력을 <창조하기/합성하기>란 명칭을 사용하여 최고수준의 고차원적 사고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 * 창의적 학생의 특징 <질문하고 도전한다/ 연결하고 관련성을 찾는다/ 어떠한지 예측한다...등>은 일본현대시수업을 통해 충분히 발현시킬 수 있다.
- * 일본현대시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시공간을 제공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과정에 해당하는 관찰·호기심·형상화·감정이입·다차원적 사고·변형 등의 요소를 담고 있어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시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미지·비유·상징 등의 수사법은

학습자의 표현력을 높여 창조적 언어운용능력을 갖게 한다.

*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메타포나 상징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시는 이해하기 쉬운 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면 별 무리 없이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이 가능하다.

일본현대시를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하게 되면, 시인들처럼 관찰력과 호기심이 강해지고 대상을 바라볼 때 자기 나름의 관점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것들이 통찰력으로 이어져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고, 창의적 언어구사능력도 갖게 되어 의사소통을 잘 하는 역량 있는 인재로 활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곽광수 『가스통 바솔라르』 민음사 1995 p.34.
- 구인환·우한용·박인기·최병우(2008) 『문학교육론』 三知院 pp.243~244..
- 김대행 외8인 공저(2008)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p.156~158.
- 김태완(2013) 『글로벌 시대의 교육』 학지사 p.185.
- 남이숙(2011) 「속담의 운율과 수사법을 활용한 문학 수업-일본속담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51집 pp.89~91.
- 이주섭외 7인 공저(2014) 『국어과 창의성 신장 방안』 박이정 p.16.
- 버트 루트 번스타인, 미셸 루트 번스타인 지음 박종성 옮김 (2007) 『생각의 탄생』 에코 서재
- 장하늘(2009) 『문장표현의 모든 것 글쓰기 표현사진』 다산북스 p.77.
- 조연순·성진숙·이혜주 지음(2008) 『창의성교육』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18., pp.253~255.
- 황인원(2010) 『시에서 아이디어를 얻다』 흐름출판 p.5
- 天沢退二郎 『日本名詩集成』 学灯社 1996
- 吉野弘(1989) 『詩の楽しみ』 岩波ジュニア新書 p.133.
- 米沢英雄 (1977) 『こころの詩』 黎明書店 p.32.

논문 투고 일자 : 2015. 12. 29

논문 심사 일자 : 2016. 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6. 2. 4

<要旨>

創造力を高める「日本現代詩の授業」 方案

南二淑

本稿では近年注目されている創造力をめぐって創造力の概念と詩との関連性、日本現代詩を用いて創造力を伸ばす授業が可能であるか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その結果は次の通りである。

*創造性とは、新しく適切なものを作成したり、考えたり、表現する可能性が向上する方向に一人の人間の動機態度能力技法が継続的に統合される過程での全体的な特性をいう。

*ブルームは、教育の分類体系で創造性に対応する能力を総合するという概念を使用して、最高レベルの思考能力に区分している。

*日本現代詩は読者に様々な体験の時空間を提供する。なお、新しいアイデアを産み出すのに必要な観察力・好奇心・形象化・感情移入・想像力・多次元の思考などの要素を含んでいるので、創造力を高める教材として十分であるといえよう。さらに詩で用いられているイメージ・比喩・シンボルなどの修辞法は学習者の表現力を高め、創造的言語運用能力を持たせる。

*学生が忌避するメタファーや象徴の要素が含まれている詩は、理解しやすい内容から段階的に導入していくと学習者はスムーズに難易度の高い詩も楽しめる。

日本現代詩授業をうまく利用すると、学習者は対象を眺める際、自分なりの観点を獲得し、創造的言語運用能力も持つようになり、現代社会で要求す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うまい人材になるとと思われる。

Modern Japanese poetry teaching method for improving creativity of students

Nam, Yi-Sug

This paper examines how students creativity can be developed through teaching and learning modern Japanese poetry. Moreover, it explores how modern Japanese poetry can be effectively taught in the classroom.

* Japanese modern poetry provides space and time in which readers can have access to a variety of experiences. Moreover, it also includes elements such as observation, curiosity, figurative reduction, empathy, multi-dimensional thinking, which correspond to the processes of producing creative ideas. In addition, various tools of expression including images, metaphors and symbols that are used in the verse let the learners enhance their expressive power and have creative language proficiency. Therefore, it has enough value as teaching materials for improving creativity.

*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poetry which includes metaphor and symbolism. However, it is possible to help students develop their creativity through a stepwise teaching of modern Japanese poetry.

Learning much in Japanese modern poetry class will turn the students into human resources equipped with their own points of view of the subjects they encounter everyday and creative language proficiency as well as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which is highly needed by modern society.